

지구촌 양계뉴스

일본

사료가격 폭등으로 양계업자 도산 급증

일본에서 양계업자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다. 민간신용조사회사인 도쿄상공리서치에 의하면 금년 1~7월의 전국 도산(부채액 1,000만엔 이상, 사적 정리 포함) 건수는 13건으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던 2003년(10건)을 상회했다.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에탄올 연료의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에서 주원료인 옥수수가격이 급등했는데, 옥수수를 배합한 가축사료의 가격도 올라 수익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이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가축사료용 옥수수의 9할 이상을 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금년 배합사료가격이 작년보다 3할 가까이 올라 1996년 이래 11년만에 높은 가격이 되었다.

양계업자의 전국단체인 일본양계협회 담당자는 “양계용 사료는 옥수수의 배합비율이 5~6할을 점하고, 경비의 태반이 사료대로서 경영난으로 직결하는 사태다”라고 했다.

- AS

EU

가금육 생산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럽위원회는 최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EU의 축산물 등의 주요농산물 수급에 관한 예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돈육, 가금육 및 유제품시장은 확대경향 추세이며, 우육 생산량에 대해서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식육의 1인당 소비량에 대해선 2006년 발생한 AI 영향으로 인한 시장 혼란도 회복돼 2014년은 2006년과 비교해 3.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2007년 6월말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예측한 것으로 도하라운드 다각적 무역교섭의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중기예측기간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의 무역률이 계속 적용된다는 전제에서다.

가금육의 수급은 2006년 EU에서 발생한 AI의 영향으로 소비, 수출의 감소나 생산저하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 하락 등 큰 혼란을 초래했으나 이번 보고 예측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

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금육의 생산량은 기타 식육과 비교해 가격이 싸다는 것과 건강지향을 반영한 소비자의 선호로 전체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량에 대해서는 브라질, 타이산을 중심으로 한 가금육에 대한 새로운 관세 쿼터 설정으로 단기적으로 증가하고 중기적으로도 완만히 신장돼 2014년 EU는 가금육의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AW

러시아

이탈리아산 가금류 수입 중지

러시아는 EU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인 이탈리아에서 AI가 발생하자 지난 8월 20일부터 이탈리아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다고 방역당국 관계자가 21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수입중단 조치는 살아있는 가금류 뿐만 아니라 가금육, 열처리가 되지 않은 모든 가공품 그리고 가금 사료 등에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방역당국은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AI의 경우 2건 모두 인체에 위협하지 않은 저병원성 H5N2형 AI였다고 강조하고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러시아의 이런 조치는 상업적인 이유 외에는 설명이 안된다고 하며, 이탈리아 축산물은 소

비자들에게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방역 관계자 De Castro가 20일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만 OIE에 AI가 정식보고된 EU 가입국가인 헝가리, 영국, 체코 등의 국가에서 가금류 수입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 로이터

이탈리아

저병원성 AI 발생

이탈리아 Lugo의 한 가금농가에 발생한 AI는 저병원성 H5N2형 바이러스로 밝혀졌다고 이탈리아 방역당국이 지난 8월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은 약 7,000마리의 오리와 3,000마리의 거위, 150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AI 바이러스가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해당 농장은 이동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모든 동물은 살처분될 것이고,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에 이동금지선(restriction ine)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 프로메드메일

인도네시아

AI 샘플 공유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에 발리에서 발생한 고병원 AI 바이러스로 인해 해당지역의 5,000



여 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이 H5N1형 바이러스 샘플을 WHO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지난 8월 13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로 현재 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과거에는 AI 바이러스 샘플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번 바이러스 샘플 공유는 AI를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검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추후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방역당국 관계자가 언급했다.

추후에도 WHO에서 공정한 방법을 통해 AI 바이러스 샘플을 연구, 조사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AI 바이러스 샘플을 공유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 로이터

독일

가금류에서 AI 발생

독일의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한데 이어 가금류에서도 잇따라 AI 감염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독일 방역 당국이 대규모 살처분에 나서는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한 가금류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에서 AI 변종 바이러스로 인체에도 치명적인 H5N1이 검출됨에 따라 16만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독일 언론이 지난 8월 27일 보도했다.

바이에른주 에어랑엔 부근의 가금류 농장

에서는 지난 8월 24일 400마리의 오리가 AI 증세로 폐사했다.


독일 국립 동물방역기관인 프리드리히-뢰플러 수의학연구소는 이들 폐사한 오리 중 5마리에서 H5N1이 검출됐다고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 반경 3km 지역을 격리 구역으로 선포하고 조류의 반입과 반출을 금지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4월 작센주 라이프치히 인근 농가의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튀링엔주 비커스도르프 인근 농가에서 폐사한 거위가 H5N1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독일 방역 당국은 지난해 8월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AI가 다시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발생지 인근에 대해 조류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하고 조류를 실내에 가둬 사육할 것을 명령하는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2월 북부 뤼겐섬에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 백조가 발견된 이후 8월까지 독일 전체 16개주 중 6개 주에서 200여건의 AI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 베를린=연합뉴스